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28일(수)은 설날이다.

설날 연휴를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중과세의 지적이 있는 만큼

소박하고 의미있게 이 기간을 지나도록 하자.

평소 수요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1·2부 두 차례의 예배 중

한번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사도 바울은 가진 바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감격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은사)로 주신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1. 선물을 주신 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풍성한 선물을 주신 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진 바와 누리는 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다 형언할 길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같이 우리에게 후사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천국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를 인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으며 지체로 삼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內住)하시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	시편 23편 1 ~ 6절 인도자
찬송	460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9장 6 - 15절 인도자
설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인도자
찬송	493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해 독생자를 주심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시며 인간이신 주님의 신비를 표현할 길 없으며, 창조주이신

려야 합니다.

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 베푸신 과분한 사랑을 인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3. 선물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드립니다. 법사에 감사하는 말과 찬송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마음이 넓어지고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아집니다.

셋째, 섬김으로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받은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충성하게 됩니다.

창조주되신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입술과 마음과 생활 속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메시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고린도후서 9장 6 - 15절

며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니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만가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영광스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2. 주신 선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

예수님의 딸구유에 오신 겸손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유의 대주재이신 분이 자기 땅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사 자유와 소망의 길을 여셨으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크심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베푸심으로 확증된 그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에 우리의 감사도 억지로 하지 말고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후히 드

이사야

예루살렘의 비참

1장 21 -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백성들이었으며 예루살렘은 공평과 공의가 충만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름답던 모습을 다 상실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1. 예루살렘의 죄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21절).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정조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매우 크게 벌하십니다. 때로 음행하는 것을 우상숭배와 같이 취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살인자들뿐이었던다”(21절).

마귀는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고 사투만 싸우게 만듭니다. 불안과 분노를 조장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게 만듭니다. 사방이 살인자들뿐이라고 한 것은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은 찌꺼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22절).

은에 찌꺼가 끼거나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을 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지 못한 은과 포도주는 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 위선과 속임수는 폭로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언젠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작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23절).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니다.

2. 심판의 예고

패역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슬프다...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24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에는 하나님

의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도시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악이 팍 차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므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원수인 사탄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원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나무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혼, 명예, 권장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따라가다가는 그것으로 인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찌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자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축이 되고 그 귀중한 자는 의로 구축이 되리라”(사1:25 - 27).

이종운 목사



에게 보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돌려 너의 찌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25절).

예루살렘의 찌꺼기를 제하시고 청결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은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26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데 지도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마1:21, 롬11:26).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28절).

이는 완전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부끄러운 도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제 회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하늘 창고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으리라”(31절).

삼오라기는 불이 조금만 닿아도 타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가면을 빨리 벗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도래할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날 연휴를 바로 보내기 위한

어린이 십계명

지난 주일 어린이 저녁예배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두 세명 씩 조를 짜서 설연휴를 바로 보내기 위한 십계명을 만들어 보았다. 그중 다윗조와 믿음조에서 발표한 것을 여기에 실어본다.

다윗조

최재우·전아람

제 일은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

설날이 되면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습니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상에 절을 하는데 성경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으므로 제사상에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이는 노름하지 말라.

평절에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 노름을 하는 일이 잦습니니다. 어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린이들도 노름을 즐기곤 합니다. 노름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름 대신에 가족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삼은 용돈으로 십일조를 드리라.

어른들께 받은 세배돈이나 용돈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 사는 친척들에게 진도하라.

모이는 친척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진도하면 여러 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제 오는 놀러가는 일을 줄이라.

설날 연휴는 쉬는 날이라고 모두들 놀러 갑니다. 놀러가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고 가족이나 친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육은 어른들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뿐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칠은 불우이웃을 생각하라.

설날 세배돈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아이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랑하는 일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팔은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지 말라.

요즈음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몹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제 구는 싸우지 말라.

친척들이 모이는 날에는 친척 언니 오빠나 동생들도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면 어른들이 힘들어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제 십은 가족예배를 드리라.

가족과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미 없이 놀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친척에게는 전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믿음조

우예진·김기윤

제 일은 부모님을 사랑하라.

신세대라고 자칭하는 우리는 자칫 구세대인 어른들을 잘알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과 어른을 존경하고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제 이는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다. 살아 계시지도 않는 조상이나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제 삼은 세배돈 1만원 이상은 받지 말라.

요즘 IMF시대라고 어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다.

제 사는 받은 세배돈에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받은 것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더욱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

제 오는 가정예배를 드리라.

교회에 나오는 날은 아니지만 식구들이 일터에 나가지 않고 모두 모일 수 있으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제 육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보다 다른 형제나 친척이 세배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그것을 탐내면 안되겠다.

제 칠은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라.

모처럼 만난 친구나 친척, 형제들과 뭉수 있으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제 팔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참다운 예수님의 이런 이답게 다른 사람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할 줄 알아야겠다.

제 구는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잘못하면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랑하는 일은 유치한 것이다.

제 십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순례자 긴급동의

☐ 설날 연휴 바로 보내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재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설날 연휴를 바로 보내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긴급동의하고 실천한다.

- ① 설날 연휴 동안 장거리 여행은 삼가고, 자가용 운행을 가급적 줄인다.
- ② 이종과세를 피하고 3일 간의 연휴 중 설날 당일만 쉬고, 나머지 2일은 일터에 나간다.
- ③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는 일보다 살아계신 어른께 효도하기를 힘쓴다.
- ④ 언론기관에서는 바른 휴일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낭비적이고 과시적이며 미신적인 행동을 선행하는 보도는 일체 삼간다.

■ 농어촌 100교회운동

결연현황

1998년 1월 24일 현재(후원자는 무순)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64	공검서부교회	장주옥(전)	청년부·예배위
65	굴암교회	최효임(전)	마포·은평·서대문
66	베다니교회	이인수(목)	에스터5, 마리아
67	미문장애인교회	박서근(목)	신순우
68	둔병교회	류한득(목)	김현주
69	신암교회	김애자(전)	한나 2전도회
70	세곡교회	김진호(전)	에스터 2전도회
71	백도교회	이기성(목)	권사회
72	수락교회	이창규(전)	베드로4, 바울4
73	신산교회	심규백(목)	에스터 5전도회
74	송천교회	정용식(전)	마리아 5, 임희춘
75	연보리교회	정장영(목)	최종시·최길숙
76	은혜교회	강영숙(전)	하인선·남태순
77	사곡교회	오유성(전)	루디아 1전도회
78	삼진교회	계용권(전)	루디아 2전도회
79	삼척남부교회	김형근(전)	홍정호·우선자
80	사목벤엘교회	김순덕(전)	바울 3전도회
81	신성교회	오준석(전)	정하사
82	화평장애인교회	김구열(목)	한나 1전도회
83	산전교회	김영규(목)	논현 9, 10다락방
84	방잠교회	정봉기(목)	바울 1전도회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85	목포열린교회	장경호(목)	루디아 2
86	북면중앙교회	김종춘(전)	에스터 4전도회
87	여천동교회	정철기(전)	요한 5선교회
88	주왕산교회	황철재(전)	모세선교회
89	성루교회	이진구(전)	루디아 5전도회
90	로뎀교회	고남경(목)	한나 2전도회
91	도담교회	신창섭(전)	루디아 1전도회
92	남양동부교회	김광태(목)	한나 1전도회
93	덕호교회	고재복(전)	바울 6전도회
94	봉곡교회	김용식(목)	바울 2산교회
95	안다음교회	김학희(목)	베드로 2선교회
96	송강교회	김성은(전)	한나 2전도회
97	신촌교회	유구의(목)	베드로 5선교회
98	삼읍교회	전승(목)	마리아 2전도회
99	사봉로교회	김태완(전)	루디아 2전도회

■ 정정

지난 주 게재된 것 중 다음 교회는 후원이 취소되었습니다.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32	구락교회	이식노(목)	청년부
44	덕제교회	정용철(전)	예배위원회
46	이산제일교회	조준래(목)	마포·은평·서대문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월 새가족 환영회

* 1월의 새가족 *

전은정 김소연 이환용 김미선 안재근
정정봉 허정희 이기웅 전성옥 최경숙
남형인 이은미 이현정 하상용 박소영
유원조 민현기 박소연 최성완 강병기
도창희 강현정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순례자 길림 ◆

무속이 민속인가?

국제화를 부르짖는 21세기를 향해 힘찬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작금 전통문화라는 미명 하에 무속적 의식이나 무당 굿판을 매스컴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면 이는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는 이들의 우매한 짓이라고 자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외래종교에 의해 한국의 전통문화가 마치 억압을 받고 있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줌으로서 국민정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적인 것과 미신적인 것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민속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종교 의식이나 무속행사를 당연히 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자칫 무속의 나라처럼 비쳐질 우려도 있음을 알아야겠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요일4:1).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영생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만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의 자기 본성은 능력이다. 창조 능력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사랑에서 온다.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을 하는 순간 또한 사랑을 알게 된다. 아직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을 알지 못한 증거요 사랑이 사랑으로 역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능력을 체험한 만큼, 사랑을 아는 만큼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배워가면서 인간답게 성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30일(금) 군복음화후원회 정기이사회와 한기총 총회에 참여.
- ◆ 오늘 점심식사는 임상헌·서희숙 집사 가정에서 제공.
- ◆ <순례자> 동정란에는 성도들의 이사·등으로 인한 연락처 변경, 득남·득녀, 개업 등의 내용을 씁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이성득 목사(교회 전화 517-7651-5)나 순례자편집실(팩스 516-9641), PC통신(천리안 pek9, 유니텔. popo0)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경건·사랑·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농어촌 자매교회와 100교회운동을 위해
3. 나라와 민족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